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마이다스커버드콜주식형투자회사

2008년 10월

Fund Facts

투자 목적 :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 2002.04.19
펀 드 규 모 : 620억원
총 보 수 : A1-연2.49% / C1-선취1%+연1.24%
환매수수료 : A1-없음 / C1-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한 달간 펀드수익률은 -19.02%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 수익률은 17.25% 하락하였습니다. 참고지표 대비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하락장에서 80%내외의 편입비 유지했던 점과 성과가 좋았던 삼성전자 및 통신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달 주식시장은 미국의 7,000억불의 구제금융 투입 결정, 각국의 금리인하 공조 등 여러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정책들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감과 실적발표 기업들의 실적 하향조정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관투자자 자금 유출로 인해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도를 하였고 국내기관도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KOSPI는 1,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과감한 금리인하와 연기금의 자금집행으로 저점에서 15% 반등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에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과의 원/달러 스와프 공조는 한국의 달러유동성 위기 루머 잠식과 원화약세 진정에 큰 기여를 하여 KIKO 등 환옵션 관련 피해기업, 원화약세 피해기업 등의 주가 급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전체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는 상황으로 베타가 낮은 업종대표 종목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볼 때,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전기전자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운수장비, 은행, 건설, 증권, 보험 등 업종이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중에서 SK텔레콤, 삼성전자, 대한항공, S-Oil,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KT&G, 한샘, NHN, 삼성증권 등의 투자 실적이 좋았던 반면, 대한해운, 한화, 동부화재, 효성, STX팬오션, 한진중공업, 소디프신소재,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우리금융, 동국제강, 남해화학 등의 투자 실적은 저조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외환은행과 동양기전 등을 신규편입하고 한진해운, 대웅제약, 대우증권, 강원랜드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업종별 수익률은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전기전자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하였고,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운수장비, 은행, 건설, 증권, 보험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월 매도한 10월 만기 콜옵션의 경우 옵션만기일 지수가 매도한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 하였습니다. 행사가격 202.5에 매도되었던 10월물 콜옵션에서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11월물 콜옵션을 185과 190에 매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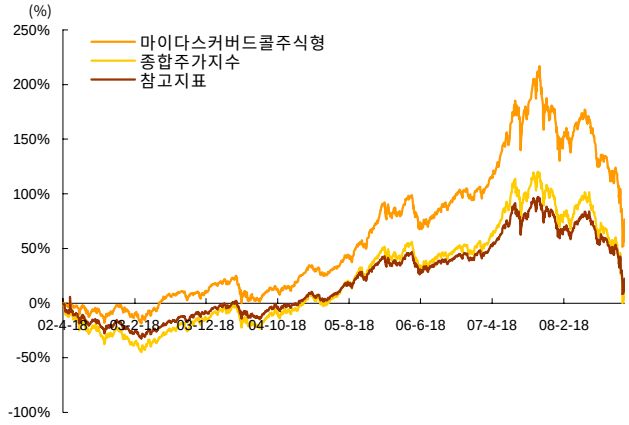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커버드콜주식형	-19.12%	-25.05%	-34.65%	-43.24%	76.74%
참고지표	-17.25%	-22.34%	-28.65%	-33.19%	22.47%
초과수익률	-1.87%	-2.70%	-6.01%	-10.05%	54.27%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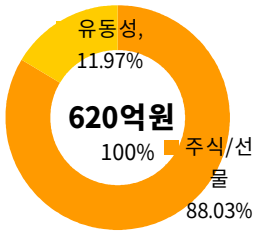
수익률 추이

(2002.04.18~2008.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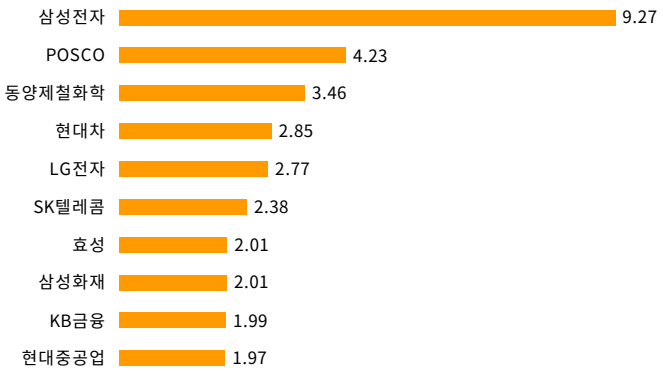
※지수 변화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기 위해 KOSPI 그래프도 함께 표시함.

포트폴리오 현황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32.94%)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